

1960年의 大學圖書館

——특히 藏書量을 中心으로——

張 一 世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部門이 바로 大學圖書館 部門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共鳴하는 바이다.

지난 一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解放以後 가장 많은 圖書館建物이 新築되었고 가장 많은 圖書를 購入하였고 또 가장 많은 職員을 가지고 있는 곳이 大學의 圖書館들이다.

公共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 部門과는 比較가 안될만한 發展을 이룩하였다고는 하지만 果然 이 程度의 發展으로서 滿足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問題이다.

解放以後 雨後竹筍 모양으로 많이 생긴 것이 大學이었다는 것은 세삼스러이 이야기 할 必要조차 없다. 그렇게 많은 大學들은 겨우 敎室만 準備함으로써 質의인 教育이라기 보다 量의으로 大學生 輩出에만 努力하였으며, 이러한 結果로써 머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大學生들이 數없이 大學의 門을 나온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虛實의인 大學教育을 是正하기爲하여 생긴 것이 大學設置基準令이 있다. 이 基準令이 內包한 많은 矛盾이 있기는 하지만 圖書館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不可缺한 存在이며, 學生 一人當 30冊의 圖書

와 基本圖書의 具備를 法令으로서 規程케 되었다는 것의 何如間 教育的인 見地에서 볼때 一大 進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先進國家에 있어서의 例를 보면, 먼저 大學校舍가 세워지기 前에 圖書館이 建立되고, 그 다음에 寄宿舍, 그리고 맨 끝으로 校舍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면 大學教育에 있어서 얼마나 圖書館이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짐작 할 수 있다. 圖書館을 매는 大學教育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288년에 公布된 同 基準令은 年次的으로 一定한 基準에 到達토록 規定되어 있는 關係로 各 大學에 있어서는 거이 強制的으로 圖書를 購入 또는 蒐集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大學에서 시작된 많은 圖書館에서는 圖書의 質은 別 問題로 하고 量의인 基準에 到達하려고 가진 手段을 다 썼던 것이 또한 事實이지만, 量에만 重點을 둔 나머지 質의으로는 거이 보잘것 없는 休紙 같은 것까지도 藏書量으로 計算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問題를 惹起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財政적으로 逼迫한 狀態에 놓여 있던 여러 大學에서는 圖書의 質이라든지, 敎科課程과 圖書의 內容, 또는 各自大學의 性格이라든지를 考慮할 餘裕

없이 無秩序하고, 아무 計劃性 없이 數를 느리기에만 汲汲하였다.

위에 簡單히 이야기한 事實들을 考慮할 때 다음에 表示할 統計에 나타나는 數字가 果然 어느 程度의 價値를 가질 것인가는 再考치 않을수 없는 것이다. 大學에서 具備하여야 할 基本的인 圖書目錄 같은것이 아직 없는 現在의 狀態로서는 不得已 數字上으로 본 統計만이 唯一한 參考資料

이기는 하지만 一部 圖書館에서는 이 數字 亦是 當局의 눈을 가리우고 基準에 規定한 數字에 到達키 爲한 虛僞數字가 多分히 들어 있다는것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事實들을 念頭에 두고 다음 統計를 살펴 보기로 한다. (다음 統計表들은 韓國圖書館協會 調査에 依한것임)

第一表 4291年度末現在

	동 서	서 서	합	도서구입비
서울 대학교 중앙 도서관				
전남 대학교 " "	35,766	28,218	63,984	6,500,000
경북 " "	37,948	44,290	82,238	8,139,705
부산 " "	53,791	27,006	80,797	
교려 " "	72,275	43,581	115,856	20,000,000
연세 " "	86,139	45,688	131,827	3,000,000
이화여자 " "	49,668	33,036	82,704	5,950,000
동국 " "	55,786	14,411	70,197	14,500,000
중앙 " "	54,206	71,621	125,827	2,500,000
성균관 " "	38,881	11,761	50,642	25,000,000
한국 외국어대학 도서관	8,250	18,493	26,743	4,000,000
숭실 대학 도서관	4,080	13,630	17,710	1,200,000
수도 의과 " "	201	13,707	13,908	618,015
덕성여자 " "	5,000	1,000	6,000	
홍익 " "	4,836	4,642	9,478	
청구 " "	15,355	17,359	32,714	4,500,000
합 계	522,182	387,443	910,625	

第二表 4292年度末現在

	동 서	서 서	합	도서구입비
서울 대학교 중앙 도서관	442,427	153,549	595,976	2,077,300
전남 대학교 중앙 도서관	42,023	28,955	70,978	11,546,000
경북 대학교 중앙 도서관	61,024	57,827	118,851	17,724,365
부산 대학교 " "	53,791	27,006	80,797	
교려 " "	76,302	56,261	132,563	21,400,000
연세 " "	86,139	45,688	131,827	

이화 여자	"	"	51,725	39,420	91,145	24,360,000
동국	"	"	58,002	15,547	73,549	10,000,000
중앙	"	"	32,490	65,067	97,557	
성균관	"	"	45,950	18,148	64,098	25,000,000
한국 외국어 대학	도서관		5,775	26,933	32,708	4,500,000
숭실 대학	"	"	4,366	19,761	24,127	1,500,000
수도 의과 대학			246	15,705	15,951	2,248,000
덕성 여자	"	"	2,054	12,543	14,597	1,000,000
홍익	"	"	5,178	4,533	9,711	2,500,000
청구	"	"	18,287	24,361	42,648	7,000,000
합		계	985,779	611,304	1,597,082	

第三表 4292年度中の増減

학 교 명	동 서	서 서	합	도서구입비		
서울 대학교 중앙 도서관						
전남	"	"	6,257	737	6,994	+5,046,000
경북	"	"	23,076	13,537	36,613	+9,584,660
부산	"	"	0	0	0	
고려	"	"	4,027	12,680	16,707	+1,400,000
연세	"	"	0	0	0	
이화 여자	"	"	2,057	6,384	8,441	+18,410,000
동국	"	"	2,216	1,136	3,352	-4,500,000
중앙	"	"	-21,716	-3,544	-28,270	
성균관	"	"	7,069	6,387	13,456	
한국 외국어 대학	도서관		-2,475	8,440	5,965	+500,000
숭실 대학	"	"	286	6,131	6,417	+300,000
수도 의과	"	"	45	1,998	2,043	+1,629,985
덕성 여자	"	"	-2,946	11,543	8,597	
홍익	"	"	342	-109	233	
청구	"	"	2,932	7,002	9,934	+2,500,000
합		계	463,597	223,861	686,457	

統計表에 表示한 바와 같이 第一表는 4291年度末 現在의 藏書量이고, 第二表는 4292年度末 그리고 第三表는 4292年度末 現在 藏書量에서 4291年度末 現在 藏書量을 控除한 것으로서 4292年度中 増減된것을 表示한다.

第三表 即 増減表는 여러가지로 많은 재미있는 對照的 比較를 보여 주고있다. 그中 몇몇 大學에 있어서의 藏書量의 減少는 實際的인 減少가 아니라 前年度에 있어서의 計算錯誤가 近來에 와서 嚴密한 檢査로 말미암아 確實한 數量이 나타남으

로써 減少된 數字라고 보여지지만 全體의 으로 볼때 相當量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東洋書는 4292年 1年 동안에 前年度까지의 總藏書量의 88%가 增加했고, 西洋書는 60% 弱이 增加했다. 이러한 宏壯한 增加率을 보인것은 워낙 적은 藏書量을 가지고 있는 우리 圖書館의 現狀으로 볼때 매우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위의 統計에 代表로 뽑은 學校들은 우리나라 全體 大學校의 現狀을 代表한것은 아니다. 全體의 으로 보면 훨씬 低調한 增加를 보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先進國家의 一流 大學들의 一年間 藏書 增加量과는 比較도 안될 만큼 極히 微微한 增加率이다.

個個의 大學圖書館을 分析해 본다면 더욱 仔細한 實態를 把握할수 있을것이지만 紙面關係로 大體를 살펴 본다면 一般의 으로 너무도 圖書購入에 誠意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두군데를 除外 한다면 겨우 幾百萬圓의 圖書購入費를 充當하고 있을 뿐이다. 學生數 數千을 헤아리는 大學들이 不過 幾百萬圓으로서 足할것인가는 너무

第5表

消 費 處	金 額	冊 數	%
大學圖書館	\$ 100,000	33,000	20%
官公署 및 傘下機關	135,000	45,000	27%
大學生(主로 教材)	50,000	17,000	10%
一 般	50,000	17,000	10%
在 庫	165,000	54,000	33%

(汎文社提供)

外國에서 들어오는 圖書의 겨우 20%가 大學圖書館에 消費되었고, 그 金額이 겨우 10萬弗 밖에 안된다는것은 우리나라 最高 學術機關에서 얼마나 나날이 發達하는 世界 學術界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도 변한 일이다. 새로 出版되는 外國의 學術書籍은 姑捨하고 國內에서 出版되는 一般 雜誌와 一般 圖書 購入에도 不足할 程度이다.

한편 外國에서의 圖書輸入狀態를 살펴 보고자 한다. 4292年9월부터 今年 8月에 이르는 一年동안 I. C. A 資金中 圖書購入費로서 50萬弗이 割當되었다.

50萬弗의 使用處 및 額數는 大略 다음과 같다.

第4表

國別	使用金額	%
美國	23萬弗	46%
英國	15	3%
日本	8~10	16~20%
獨佛	1.5~2	3~4%

(汎文社提供)

輸入되는 外國圖書들의 割引을 加算한다면 多少 差異는 있지만 圖書一冊當 3弗程度로 보아 約 16萬餘卷의 圖書가 輸入된 셈이 된다. 그 輸入된 圖書는 大略 다음과 같이 消費되었다.

가를 如實히 나타내고 있다.

大體로 大學圖書館에서의 一般의인 購入傾向은 以上 略述한 바와 같거니와 個個의 大學圖書館을 볼때 一年間의 圖書購入費가 不過 幾十萬圓에 未達하는 圖書館

이 許多한 實情을 볼때 그저 寒心하다고 밖에 表現할수가 없다.

1923년에 있어서의 各大學 圖書館 實情은 아직 明確히 알 길이 없으나 4.19政治革命이 있은後 많은 學校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形態의 紛糾는 事實上 圖書館 活動을 거의 癡癡狀態에 빠트린 곳이 많은 것은 讀者가 다 아는 바이므로 여기에 再言할 必要가 없으나, 圖書館의 正常的인 輸入이 中斷되었던 日本과의 關係가 改良됨으로써 第4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不過數個月 동안에 10萬弗이나 되는 巨額이 日本圖書輸入에 割當되었다는것은 注目하지 않

을수 없는 事實이다.

오랫동안의 念願이었던 政治的인 改革도 完遂된 오늘날, 모든 學園이 하루速히 正常化되어 眞實한 學術 研究의 殿堂으로서 本然의 姿態로 돌아갈것을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 이러한 狀態로 돌아 갔을 때에 비로소 正常的인 圖書館 活動이 期待될수 있으며, 基準令에 依한 圖書數의 確保라기보다 眞實한 뜻에서의 學術研究資料로서의 圖書를 갖추기에 이를 것이다.

(筆者 梨大圖書館學科 講師)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

著者 金斗弘 (慶南高等高校司書教師)

趙載厚 (慶南女子高等學校司書教師)

崔大林 (釜山師範學校司書教師)外二人

發行處 慶尙南道教育研究所

現職司書·司書教師에 限하여 小部數를 頒布합니다.

(頒價 2,000圓)

圖協事務局에 現品이 있습니다.